

부안 원스톱 연료전지 평가센터 청신호

연료전지 시험·인증 ‘한방에’...국내 최대 평가센터 가동
1천332㎡ 규모 83기 첨단장비 구축...‘원스톱 시험체계’ 완비
’21~’24년 중소기업 54건 기술지원, 시험평가 255건 실적
올해 본격 가동...기업 맞춤형 평가·인증 지원 대폭 확대 예정

국내 최대 규모의 고분자연료전지 평가센터가 부안에서 가동 중인 가운데 기업들의 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며 주목받고 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위치한 평가센터는 연면적 1천332㎡ 규모로, 연료전지 스택부터 시스템까지 성능과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총 83기의 첨단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시설이다. 시험부터 인증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험 지원체계’를 갖춘 이 센터는, 국내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자립과 상용화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연료전지의 장기 내구성이나 성능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기반

이 부족해 기업들이 자체 시험설비를 갖추거나 해외 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평가센터의 본격 가동으로 연료전지 관련 기업들은 신뢰성 검증, 성능 향상, KS 인증 지원 등 필수 절차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개발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장비가 순차적으로 구축되면 시기부터 운영을 병행하며 기업 지원을 지속해 왔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54건의 중소기업 애로 기술을 지원했으며, 시험평가 서비스를 포함하면 총 255건에 달하는 기업 지원 성과를 기록했다.

가온셀, 테라릭스, 미코파워, 에스퓨얼셀, 두산퓨얼셀과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다수의 국내 연료전지 중소·중견기업들이 센터를 통해 연료전지 스택 활성화, 시스템 효율 측정, KS 인증 획득, 장기 내구성 평가 등의 다양한 기술지원을 받으며 제품 상용화와 시장 진출을 앞당기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만 14건의 애로기술 지원과 62건의 시험평가가 이뤄지는 등, 센터의 활용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도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올해부터는 구축된 83기 전 장비를 본격 가동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센터장은 “장비 활용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한 기술검증과 인증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소과장은 “평가센터는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이다”며 “2025년부터 더 많은 기업들이 센터를 통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 백년포럼 30강

25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buk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는 ‘전북 백년포럼’이 ‘민주주의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전북도>

국주영은 의원, 도 용담댐수상태양광사업 “안일 대응” 질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에 20MW 수상태양광 설치 재추진
도와 6개 지자체, 5년만 조건부 수용 입장...사유 도민에 밝혀야
지역 주민과 사전 논의·협의의 필수이나 단 한 차례도 주민설명회 없어

한국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수상 태양광 재추진 과정에서 주민수용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축구장 39배 규모’ (20MW) 연간 약 2만5천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전북지방환경청은 용담댐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에 의견조치를 한 결과

6개 시군 모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 환경 당국 또한 ‘6개 시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조건부 협의로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 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치 시 전북도 및 6개 시군은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수질 우려 및 안정성 확보 없이 사업추진 반대 ▲용담댐의 경우 전북도민의 80%, 1백38만명의 도민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됨을 강조하며 반대했고 이후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국 도의원은 “지난 19년 용담댐 수상 태양광 사업 반대 관점에서 5년이 지난 현재 개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등이 있는 지 의문이다”며 “이 과정에서 용담댐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6개 시군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도 전혀 없었으며, 도 차원의 도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요구했지만 신중한 접근이라는 부정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당시는 대규모 수상 태양광에 대한 개발 초기 단계였고, 수상 태양광 패널로 인한 수질오염 및 상수원에 대한 도민 불안감 초래 등을 사유로 사업을 반대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국내 4개 댐에서 수상태양광을 설치·운영 중이며 전북도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전북지역, 전교생 10명 미만 ‘초미니학교’ 4년 후 71개

도,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 학생 10명 이하 학교, 5년 내 2배 증가
2029년 초·중 70곳 이상 ‘초미니학교’ 예상
교육청, 통폐합 우선 검토 대상 확대...농어촌 교육환경 변화 불가피

○ 전교생 9명 이하 학교 수 전망										
구분	2025(A)		2026		2027		2028		2029(B)	
	전체	9명이하	전체	9명이하	전체	9명이하	전체	9명이하	전체	9명이하
초	409	17	409	20	409	25	409	33	409	36
중	208	13	208	20	208	21	208	30	208	34
고	133	1	133	1	133	1	133	1	133	1
계	750	31	750	41	750	47	750	64	750	71
										증감(B-A)

전북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전교생이 10명 미만인 ‘초미니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교생이 9명 이하인 학교가 올해 31곳에서 2029년 71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6년 41곳, 2027년 47곳, 2028년 64곳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17곳에서

2029년 36곳으로 19개 늘고, 중학교는 13곳에서 34곳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다. 고등학교는 1곳이다.

초미니학교 증가는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도내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17만 2000여명에서 2029년 14만여명으로 18%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초등학교생이 29% 급감하고 중학생은 16% 줄어들면서 초미니학교 증가세

를 보일 전망이다.

초미니학교 급증으로 폐교도 확대된다. 전교생 9명 이하의 초미니학교는 전북교육청의 ‘통폐합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도내 폐교 수는 2023년 2곳, 2024년 10곳, 올해 8곳 등 최근 3년간 20곳에 달했으나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 초미니학교 증가는 피할 수 없다”며 “학생 수가 9명 이하인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긴 하나,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장연국 도의원, “도립국악원 특혜·탈법·은폐로 얼룩”

기념품구입과정·배부 확인 불가 출퇴근 지문인식 배제…전북도는 행정절차상 문제로 치부 수사의뢰 촉구



장연국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25일 열린 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립국악원이 특혜와 탈

법, 은폐로 얼룩졌으며 김관영 도지

사에게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도립국악원은 지난해 모두 3회에 걸쳐 특정한 C씨로부터 관객들에게 나눠 줄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도자기 찻잔을 구입했다. 구입액은 총 2천3백15만원이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와 허위 공문서 작성, 탈법행위가 있었다고 장의원은 지적했다.

먼저 작년 4월 구입한 도자기 기념품(찻잔)은 지출과정에서 생산돼야 할 필수문서인 지출결의서가 없었고 누구에게 기념품을 나눠줬는지 확인도 불가능했다.

이어 11월 구입한 기념품 역시 공문서 상으로는 ‘도민의 날 기념공연’시 지급할 기념품 구입 명목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구입은 10월 25일 도민의 날이 지난 11월 초에 이뤄졌다.

구입 명목도 공문서와 달리 실제로는 목요상설국악공연 관람객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역시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줬는지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악원의 도자기 기념품 구입은 12월

에도 이어졌다.

그런데 이때는 C씨가 아닌 C씨의 아들 업체와 계약을 하고 실제 납품은 C씨로부터 받는 꼼수까지 부렸다.

계약서상 계약 상태와 실제 납품업자가 달랐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계약기간이 12월 3일부터 30일까지 28일로 명시돼 있는데도 실제 납품은 두 달이 지난 올 2월 28일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악원은 계약기간 내 계약이 이행된 것처럼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제대로 납품이 안 됐는데 납품 여부를 확인하는 물품검수조서가 만들어졌고, 실물 증빙을 위한 사진대지도 해당 공방에서 임의로 보내준 사진을 첨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와 관련,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도자기는 기성품이 아닌 탓에 계약기간 내 납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게다가 허위 답변도 있었다. 국악원측에서는 모두 납품을 받았다고 수차례에 걸쳐 구두 답변을 했는데 정작 실물 확인 결과 12월 계약 건에 따라 있어야 할 300개 기념품이 정작 100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중대 비위를 단순 절차상 하자로 인식한 도지사의 답변은 이해할 수 없고 도지사는 감사 또는 수사의뢰를 통해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문승우 도의장,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촉구’ 정부에 건의

의장 협의회서 활주로 2천500m 불과, 안정성 부족 및 국제항공 경쟁력 한계 지적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25일 경남 김해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25년 제2차 임시회에서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국내 공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항공기 사고는 활주로 길이와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 시설 설치 등 공항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공항의

활주로 연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항공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항공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 예정이지만, 계획된 활주로 길이(2천500m)는 타 국제공항 대비 턱없이 짧아 중·대형 항공기 운항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크다.

가덕도(3천500m), 대구경북통합공항(3천500m), 제주 제2공항(3천200m) 등과 비교해도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안정성과 국제 경

쟁력이 부족하며 악천후 시 이·착륙 안전성에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활주로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운항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허브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정부에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개항 및 활주로 연장 추진 ▲조류 충돌 방지 대책 강화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 ▲공항 안전 기준 강화 및 예산 증액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승우 의장은 “활주로 연장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공항의 안전성과 국가 항공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새만금국제공항이 국제적 허브 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안전성 확보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 기자

전북도 산림박물관, ‘숲과 사람-사유하는 붓질’ 기획전시

전북자치도 산림박물관은 25일부터 봄 특별기획전 ‘숲과 사람-사유하는 붓질’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5년 봄을 맞아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특별기획전으로 한국화 작가 3인의 20개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는 산림과 예술의 조화를 기조로 산림의 인문학적 해석을 통해 삶 속에 녹아있는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화의 장르적 성격을 확대해 실험성을 강조한 작품으로 구성했다.

박지수는 반복된 붓질과 층층이 쌓인 채색으로 장지에 우러난 화면질감을 통해 전통적인 사의적 세계관과 현대적 조형 언어를 동시에 표현한다.

이미영은 도시 생활로부터 오는 상처와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식물을 키우면서 자연 환경 변화를 기록해왔던 ‘대지’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밀도있게 담아내었다.

이흥규는 담백한 먹의 흐름, 절제된



빛과 색채의 조화로 따뜻하고 잔잔한 감성적 풍경을 담아 한국화가 갖는 보편적인 서정성과 자유로움을 감각적으로 구현한다.

송경호 원장은 “이번 전시는 산림박물관이 갖는 고작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것으로, 장르별 넘나들기를 통해 관람객과 밀도있게 소통하며 예술의 사

회적 역할인 ‘연대와 공감’을 통해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박물관은 4월~11월까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약은 전북산림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정혜민 기자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제작지원사업 본격 추진

(재)전북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김성규)이 운영하는 전북글로벌게임센터가 2025년 제작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게임센터는 지역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제작 및 후속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게임센터는 올해 ▲시장진출 제작지원사업(5개사)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5개사)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3개사) ▲게임기업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15명) ▲글로벌시장진출 지원 등 총 11억원 규모의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게임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인디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총사업비 2억 8천만원 지원을 통해 인디게임 기업의 성장과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전북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15개 추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등 복지체계 강화…342억 투입

전북자치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올해 총 342억1천500만원을 투입해 15개 사업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정책은 발달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보호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발달장애인의 연령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돌봄 공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및 긴급돌봄을 운영한다.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23~’24년 신설된 사업으로 도내 발달장애인에게 만족도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했고 재이용률도 높아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도에는 1만4천315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며, 이는 도 전체 장애인 12만8천989명의 9%에 해당한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유아기부터 평생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애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부안 위도에 지하수저류댐 설치…섬 지역 가뭄 해소

전북자치도는 물 공급 취약지역인 부안군 위도에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설 용량은 400㎥/일로 1천300명이 하루 동안 사용 가능한 양이며, 총사업비 70억을 확보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수저류댐은 지하공간에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 흐름을 막아 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상수도 설치가 어려워 가뭄 시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웠던 도서지역에 대해 환경부에서 2020년부터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도는 2023년 강수량이 평년 대비 78% 수준에 그쳐 상수원인 위도 저수지의 저수량이 17%까지 감소하면서 1천1백여명의 주민들이 물 부족을 겪었으며 가뭄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물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도 지역의 맞춤형 가뭄 대책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에 해당 사업을 신청했

으며, 2024년 6월부터 위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에 부안 위도를 지하수저류댐 개발 가능지역으로 추가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환경부, 부안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 4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협약에는 ▲사업 범위 ▲업무 및 사업비 분담 ▲시설물 인수·인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수저류댐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서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 확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이밖에 ▲게임콘텐츠 상용화지원사업 ▲글로벌시장진출 지원(차이나조이, 동경게임쇼 등) ▲지스타 전북공동관 지원 ▲부산인디퍼펙트페스티벌 전북공동관 지원 등 전북 게임기업 국내외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규 진흥원장은 “게임센터는 지난 시간 동안 지역 게임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데 집중했고 올해는 안정적

인 발전을 위한 게임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진흥원 누리집 및 e나라도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참가 자격과 신청 서류를 갖춰 e나라도움에서 접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환절기 건강 관리법

습도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

일교차 주의

환기는 필수

전북 어음부도율을 1월 기준 전국 최고 기록

좋은정치시민넷 공개 결과 도내 1.43% 기록
전년비 가계대출 2.0% 감소, 기업대출 4.0% 증가
“가계와 기업 환경이 어렵다는 것 반증”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전북자치도의 경제 동향을 분석,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전북 지역의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기업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도의 가계대출 잔액은 25조7천67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다. 특히, 전북의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1조9천638억원으로 6.4% 증가했으나 비은행 가계대출은 13조8천33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전체 가계대출 중 예금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6.4%로, 전국 평균인 75.7%에 비해 매우 낮았다. 반면, 비은행 대출 비율은 53.6%로, 여전히 예금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북 가계대출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13조4천535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7.7% 증가했으며 기타 대출은 12조3천13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5.2%로, 전국 평균인 66.1%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 대출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전북 지역의 기업 대출은 41조6천15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 증가율인 4.8%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체 기업대출 중 예금은행 대출은 24조6천49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의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은행 대출은 17조1백8억원으로 40.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추이에 따르면 전북 지역 기업대출은 147.2%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예금은행 기업대출은 63.2%, 비은행 기업대출은 8백66.6% 증가해 비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북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지난 1월 말 전북의 어음부도율은 1.43%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전북의 예금은행 가계대출 연체율과 어음부도율이 전국에서 상위에 있는 것은 가계와 기업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부도율의 급격한 상승은 전북 지역 기업의 자금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다”면서 “지자체와 한국은행 등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입안전기술이사임명

안전이사 배계섭 처장, 기술이사 김성주 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신입 안전이사 배계섭(裴季燮) 디지털정보처장, 기술이사 김성주(金聖住) 대구경북본부장을 각각 25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배계섭 안전이사는 1967년 생으로 전남 장흥고와 단국대 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사이버보안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입사한 배 이사는 김해양 산지사장, 서울동부지사장, 디지털정보처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김성주 기술이사는 1966년 생으로 제주 제일고와 제주대 통신

공학과를 졸업한 뒤 순천향대에서는 전기전자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이사는 1995년 입사했으며, 제주본부장, 전기안전교육원장, 대구경북본부장 등을 지냈다.

두 상임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전기안전 정책과 산업 발전에 힘쓰고, 전기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신임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2027년 3월 24일까지다.

/김영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집중 홍보 나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올해 약 97억원 예산 투입…고령농 은퇴 지원·청년농 영농 정착 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25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날 김동인 전북본부장은 이광희 전주완주임실지사장과 함께 전주 모래내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방문해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농지은행사업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2025년도 약 97억 원 예산이 투입되며,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5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활동에 나섰다.

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 당 월 50만 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인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방식도 새롭게 도입됐다.

김동인 본부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생활안정이 필요한 고령 농업인의 은퇴에 여유를 보장하고, 영농정착을 필요로 하는 청년농업인의 버팀목이 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조달청, 해외진출 유망기업 방문 애로 청취



전북지방조달청(청장 한창훈)은 25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 지정 업체인 비티에스 유한회사(대표 유춘열)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해외조달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비티에스 유한회사는 영상감시장치 전문제조기업으로, 2019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2020년에는 ‘객체정밀 추적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수출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개발공사,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 가구 대상 임대료 할인 지원

지방소멸 극복 위한 주거 안정 대책

전북개발공사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으로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할인 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해오고있다.

임대료 감면제도는 공사에서 운영 중인 국민·행복주택 거주자 중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세대에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1호 신청자는 익산 송학지안리즈 국

민임대 거주중인 A씨 세대로, 올해 신생아 출생으로 향후 2년간 임대료를 할인 받게 된다.

공사는 A씨 세대에 임대료 감면과 별도로 출산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소정의 육아용품도 지원하여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함께했다.

A씨는 “육아를 위한 큰 힘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내 11개 단지 총 3,975세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운영 중이며, 세대에 시설물 교체, 임대료 동결 등 주거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태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 전주 장학숙에 지역 인재 양성 장학금 전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유제영)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을 방문해 전북을 빛낸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협회 회원사들이 모은 정성으로, 장학금은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에 관심이 깊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2004년부터 꾸준히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 협회는 매년 교육기관에 장학금을

기부하며, 회원사 근로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유제영 회장과 정기운, 전주한 부회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 문항규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제영 회장은 “앞으로 전북의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온누리신협,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약



온누리신협(이사장 박근규)은 지난 24일 온누리신협 곡성지점(곡성군 중앙로 소재)에서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원영수)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 어부바 플랜’의 일환으로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추진했다.

온누리신협은 전통시장의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은 온누리신협을 이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온누리신협 박근규 이사장을 포함한 조합 임직원, 원영수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및 임원 등 9명이 함께했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는 지난 2월 유관기관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신협과 결연협약서를 작성했다.

박근규 이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한걸음 더 발전하고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온누리신협과 상인들의 상호협력과 상생을 위해 더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LX전북본부, 노사간담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춘수)는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1분기 노사간담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위원 14명이 참석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결과

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박춘수 본부장은 “추후 현장 안전점검 및 일선 직원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노사합의점을 찾아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순창군 산림조합, 옥천인재숙에 장학금 5천만원 기탁



순창군 산림조합(조합장 김정생)은 지난 24일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학금 5,000만원을 순창 옥천인재숙에 기탁했다.

순창군청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김정생 조합장의 6명의 이사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산림조합은 사유림 경영 지도 및 조림사업을 통해 입업 경쟁력 강화를 도

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교육으로 입업인의 소득 향상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매년 장학금 기탁과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김정생 조합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인재들이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조합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순창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뛰는 즐거움, 함께하는 감동 벚꽃과 함께, 희망 레이스

교통통제 4월 6일(일) 07:00~13:00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 교통통제 도로
- - - 우회도로 및 통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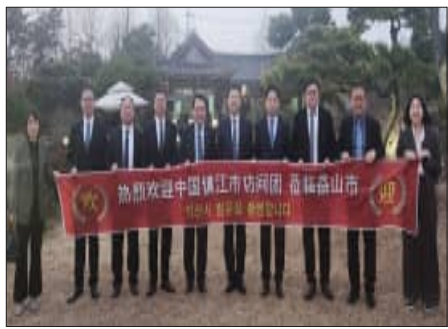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로
4월 6일(일)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차량 운행 시 통제구간 및 시간을 확인하셔서
우회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군산새만금마라톤 사무국 063)452-9425

군산시장 군산경찰서장

구간	통제시간	해제시간	비고
1 구간	원명종합경기장 ~ 동초교사거리	07:00 ~ 13:00	전면 통제
2 구간	사정삼거리 ~ 나운사거리	07:00 ~ 10:00	전면 통제
3 구간	나운사거리 ~ 내항사거리	07:00 ~ 09:00	부분 통제
4 구간	내항사거리 ~ 서래교	07:30 ~ 09:30	부분 통제
5 구간	서래교 ~ 명신사원 아파트 앞 삼거리	07:30 ~ 12:50	전면 통제
6 구간	명신사원 아파트 앞 삼거리 ~ 나포교	07:30 ~ 12:50	전면 통제
7 구간	명신사원 아파트 앞 삼거리 ~ 동초교사거리	09:00 ~ 13:00	단력 통제



익산시·중국 진강시, 글로벌 식품산업 교류 확대

익산시가 글로벌 식품도시 도약을 위해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진강시와 협력을 강화한다.

시는 중국 진강시 대표단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자 1박 2일 일정으로 익산을 방문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익산을 찾았던 진강시 인민대표회(시인대, 시의회 격) 대표단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높이 평가하며, 행정 교류 확대를 위한 현장 시찰을 추천해 마련됐다.

이에 진강시 단도구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24일부터 익산에 머물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견학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을 방문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양 도시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는 이번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진강시와의 협력 분야를 문화·체육 분야에서 식품산업까지도 더욱 넓혀갈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나무 29만 그루 심는다 탄소중립 향한 조림사업 박차

정읍시가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18ha 규모의 조림사업에 나섰다.

시는 올해 총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편백, 백합나무, 낙엽송, 상수리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 29만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이번 조림은 양질의 국산 목재를 공급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림사업은 산주가 목재수확 시기에 도달한 나무를 수확한 뒤, 산림청이 지정한 목재생산용 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산주는 전체 조림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참여 문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시는 경제수 조림 85ha를 통해 국산 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산사태나 산불 같은 산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큰나무 조림 20ha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 일원의 시유림 10ha에는 쉬나무 등 민원수림을 조성해 꿀벌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내장산 자연휴양림과 연계되는 경관숲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025년 청소년 상' 수상 후보자 공모

군산시가 오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선정을 통한 바람직한 청소년 상 정립을 위해 '2025년 군산시 청소년 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 대상이며, ▲봉사 ▲효행 ▲노동 ▲문화예술 ▲체육 ▲과학기술 ▲참여 등 7개 부문에서 각 1명씩 수상자를 선정한다.

후보자는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장 ▲시의 과 단위 부서의 장 ▲주조 또는 거주시 관할 읍면동장 ▲시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 대표(노동 부문)의 추천을 통해 내달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군산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5월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식에서 시상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계(063-454-324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조촌동 신청사 올 12월 준공

6月 착공… 노후 신평동·옥산면 청사 신축 계획

군산시는 작년 6월에 착공했던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조촌동 909-4번지 일원)가 오는 12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사 규모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 면적 2,906.8㎡이며, 총사업비는 91억 7,400만 원이다.

기존 조촌동 청사는 1983년도 10월 문을 연 후 39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다. 2022년에는 기존 청사에서 임시청사(구 농어촌공사 군산지사)로 이전하며 업무를 봐왔다. 이로 인해 주민편의 공간(주차장,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이 부족하여 인근 아파트 상가 지하를 활용 운영하기도 했으나 습기와 곰팡이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올 연말에 신축되는 조촌동 행정복지센터는 디오전시터 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 조성 등 조촌동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축 청사 1층은 민원실 면적을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사 2~4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군산시는 조촌동 행정복지센터를 오는 12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개를 확보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민쉼터를 조성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을 위한 공간도 마련한다. 이외에 청사 주차장 33면 확보 및 청사 인근에 주차대수를 추가 확보하는 등 조촌동 청사신축위원회의 건의 사항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 오랜 조촌동 주민들의 숙원을 모두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신축 청사는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제로에너지 건물이다. 제로에너지건물(ZEB)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물을 말한다.

시는 조촌동 주민의 숙원이었던 행정복지센터는 연내 12월에 마무리 지은 뒤, 이후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옥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신평동 청사신축위원회에서 신축 부지로 선정된 현청사부지 일원(문화동 919-2번지 등)에 설립된다. 옥산면 행정복지센터는 현청사부지(옥산면 옥산리 23-29번지 일원)를 최종 확정지었고, 현재는 신축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30만원지원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소상공인대상… 실적따라지원금 지급

익산시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배달앱·온라인 판매로 고정부 부담이 증가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이고, 2024~2025년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 정보통신업 등이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까지 배달·택배 이용 실적

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으로 나눠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앱과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택배비 실적이 사전에 확보된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지급된

다.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진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산센터(063-853-4411)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청년창업공간‘청년창업챌린지숍’입주자모집

총 2팀 모집…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공간·기본 사무집기·공용시설 등 이용 가능

정읍시가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공간인 '청년창업 챌린지숍' 입주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창업 챌린지숍은 정읍시 태평2길 21에 위치해 있으며, 창업 사무실 8개소를 비롯해 세미나실, 미팅룸, 공동시설, 옥상 휴게공간 등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공간이다.

모집 대상은 예비 청년창업자, 창업자, 관련 단체 등으로 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이전 예정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공간과 기본 사무집기, 공용시

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로 총 2팀이 선발될 예정이다.

입주보증금은 연납 시 61만 5600원, 반기별 납부 시 30만7800원이며, 임대료는 ㎡당 7500원으로 연 1회 산정해 부과된다.

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역량, 사업계획, 창업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청년창업 챌린지숍은 정읍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



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 인프라를 넓히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

전북 조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전북 자동차업종 상생 협약 확산지원사업 뽑혀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2억 3천 7백만 원을 확보했다.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지원사업에서 군산시는 ▲전북 조산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 총 2개 사업에 선정됐다.

'전북 조산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 협력사 재직 근로자 및 조선 기자재 기업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지원을 목적으로

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작년 본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인 91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산업 근로자가 1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300만 원, 지자체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1인당 1년에 60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시는 작년에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16개사)와 지역 조선기자재 기업체(6개사)를 지원했다.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숙련 기술 인력 확보와 고용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은 신규 입사자의 안정적 일자리 진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현대·기아자동차 원·하청 간 임금 및 복리후생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협력사가 밀집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총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선정된 바 있다.

올해에도 또다시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중·소 협력사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소득 보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산업단지근로자통근버스무료운행

오는 4월부터 무료 운행·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 시행

군산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그동안 유료로 이용했던 통근버스를 오는 4월부터 무료 운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사업은 도심권과 약 20~25km 떨어져 있는 산업단지를 잇는 대중교통 운행 부족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그러나 시는 ▲출퇴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 ▲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무료 운행으로 전환했다.

또한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출퇴근버스에 GNSS(초정밀위치정보) 단말기를 4월 초 설치하기로 했다. 단말기가 설치되면, 탑승 근로자들은 하반기부터 '카카

오맵'과 '군산시 도시통합센터 누리집'을 통해 통근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출퇴근버스는 ▲군산 오센클래스 ▲삼학대우 ▲군산동초등학교 ▲군산세무서 ▲구암현대출발점으로 하는 6개 운행노선을 매주 월~금요일 하루 출퇴근 각 1회씩 운행하며, 입주기업 근로자는 누구나 출퇴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출·퇴근버스와 관련한 세부 노선과 운행 시간은 군산시청 누리집 '기업지원 정책관'과 군산 국가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탑승 신청과 문의는 (063-464-5658)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향후 5년간 청년정책 방향성·목표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익산시가 '청년들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

익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그레이트(GREAT) 익산, 위드(WITH) 청년'이란 비전 아래 청년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됐다.

'청년이 중심인 청년 천국 익산'을 목표로 분야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양정민 시의원을 비롯해 '익산시 청년

희망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정현을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익산시 의회와 ▲청년 네트워크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상공회의소 등 청년·대학·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각층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용역의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5년간 익산시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6개월간 진행되며, 결과는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축제박람회서 부스 운영 최우수상

군산시가 '제5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이하 '축제박람회')에서 부스 운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군산시간여행축제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축제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후원,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며, 전국의 대표 축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 행사이다.

군산시는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의 매력을 소개하는 관광 홍보관을 운영해 관람객

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특히 지난해 시간여행축제에서 큰 호응을 받은 '근대놀이 기획 행사'와 '사회관계망(SNS) 친구추가 홍보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축제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2025년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군산시간여행마를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유호연 정읍부시장, 주요사업 현장 직접 방문

정읍시 유호연 부시장이 시민 불편 해소와 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 사업장을 잇따라 현장 점검했다.

지난 24일과 25일, 유호연 부시장은 정읍시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읍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사업장과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주민 불편 사항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공산후조리원 ▲고부농공단지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영파동 환경기초시설 ▲내장산 문화관광 권역 등 총 31개소로, 각 사업장의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완책 마련에 집중했다.

유호연 부시장은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내가 가고 자란 정읍을 더욱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부안군,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서 4년 연속 우수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유일

부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해 총 73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전북자치도에서는 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

됐다.

특히 군은 전북자치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적극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광역·시·군·구 등 4개 평가군으로 나눠 제도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체감도 등 5대 항목 17개 세부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상위 30%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실천과 부안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많고 혁신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전주대학교, RISE 사업 협약 체결

지역사회·대학 상생 발전 기반 구축…전문 인재 양성·산학 협력 기술 개발 등 공동 추진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군과 전주대는 지난 24일 부안군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군과 전주대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전문 인재 양성, 산학 협력 기술 개발, 창업 육성, 교육 활성화 등을 공동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군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전주대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연구·교육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과 전주대가 협약을 체결한 RISE 사업은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일부가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대학과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지역 수요에 맞춤형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는 산



업·교육과 연계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군과 전주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푸드테크 산업 기반 확대, 스마트 농업·식품산업 활성화, 관광산업과 연계한 생활인구 창출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은 풍부한 농업 자원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 전주대는 첨단기술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 및 창업 지원을 담당하며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R&D) 지원,

푸드테크·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유치, 청년 인재 유입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광·레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과 전주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주대의 연구 역량과 부안의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단순한 교육과 연구 협력을 넘어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벚꽃축제 ‘기다렸나, 봄’ 내달 4~6일 열려

포스터 및 주요프로그램 확정…1km 벚꽃 터널 등 낮·밤 아름다운 벚꽃길 조성

고창군의 대표적 봄맞이 축제, 제3회 고창 벚꽃축제 ‘기다렸나, 봄’이 포스터와 주요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고창벚꽃축제는 오는 4월 4~6일 고창군 석정온천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더욱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낮과 밤 모두 아름다운 벚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1km에 이르는 고창 벚꽃 터널에는 다양한 포토존과 경관 조명이 더해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관 예정인 석정 웰파크 호텔과 어우러진 석정 외경공원의 야경은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축제 첫날인 4월4일 전야제에는 최근 MBN 한일 가왕전 MVP로 선정돼 화제를 모은 트로트 가수 김다현의 축하 공연을 펼친다.

이어 둘째날인 4월 6일 개막식에서는 봄과 벚꽃의 감성에 잘 맞는 인기가수 케이윌과 케이시의 무대가 준비돼 있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벚꽃축제는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3회 고창 벚꽃축제는 고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봄의 정취를 만



낄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미래발전 경영인 포럼’…소통·화합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5일 지평선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제8회 ‘김제 미래발전 경영인 포럼’을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경영인 포럼은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한 관내 경영인의 화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해 이번에 8회를 맞이했으며, 관내 기업대표 및 금융기관 지점장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초청 강사는 과수종 리엔경제연구소장으로 '트럼프 경제정책의 결과속'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쳐 참석자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에서 과 소장은 현재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트럼프 경제정책의 겉으로 보이는 효과와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적 전망과 중소기업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강연하며 관내 경영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인 포럼은 매회 경제전문가의 특강을 제공해 경영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영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김제상공회의소 오랜 열원이었던 김제상공회의소 단독설립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시는 김제상의 설립 발기인회와 맞닿아 김제상공회의소 분할설립을 위한 막바지 설립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김제상공회의소는 오는 6월 공식 출범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시민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민생경제도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김제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객실 반값 할인

공휴일 전일 제외,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이 6월 30일까지 주중 객실 이용료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운산 유스호스텔은 대규모 단체 수용이 가능한 객실과 세미나실, 강당, 운동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선운산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사계절 힐링관광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할인 행사는 지역 경기부양을 위한 '민생안정 3대 프로젝트'와 연계해 군 공공기관, 사회단체, 지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사, 교육, 세미나, 워크숍,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중 객실을 이용시 숙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예약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전화(063-560-8951, 8952) 문의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박병식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은 “자연 속에서 팀워크를 다지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이번 할인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단체와 기관이 선운산에서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의회, ‘전북도 새만금신항 엄정 중립 촉구’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25일 오전 10시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엄정 중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6일 해양수산부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새만금신항의 항만 지정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앞두고 김제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서백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문제와 관련해 군산시가 정부의 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선동과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당초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문위

원회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이를 반박하고 해수부에 자문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전북도 의견을 제출하려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승경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대표 발언하며 “새만금신항은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독립적인 형태의 신규 항만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시의회는 앞으로도 새만금신항의 공정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정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원진 부안군의원, “출산·육아 지원 정책 강화해야”

부안군의회 김원진 의원이 3월 25일 열린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선택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부안군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한방 난임 치료 지원 강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원진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 수치 개선이 아닌, 부모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부안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군, 2025년 1분기 명예읍면장 14명 위촉

고창군이 25일 읍·면장 추천을 받은 14명을 2025년 1분기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했다.

명예읍면장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의 모범군민들로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군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14명의 명예읍면장은 권계완(고창읍), 양쌍례(고수면), 김재수(아산면), 김경식(무장면), 김복순(공음면), 박원철(상하면), 김범채(해리면), 김배수(성송면), 나순희(대산면), 김선백(심원면), 남두순(흥덕면), 이영선(상내면), 진백규(신리면), 채인석(부안면)씨가 위촉됐다.

/고창=백종규 기자

명예 읍면장은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 후 해당 읍·면사무소로 이동해 하루동안 주민상담 및 의견수렴, 관내 주요사업장과 소외계층 방문 등의 일선행정을 직접 체험하며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위촉식에서 “명예 읍면장제를 통해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동안 행정에서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의견 개진과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제시 등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12월까지 독거노인 안부 확인 사업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서정수)가 2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관내 고독사 위험 홀로사는 어르신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요리보고 조리보고’자살예방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교원동행복지센터(동장 최현숙),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영세), 전북김제지역사회활동센터(센터장 이석규), 김제제일사회복지관(관장 안정환),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뜻을 모아 지난 5일 김제교동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독거노인 안부확인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살위험군 독거노인 대상 ▲정기 안부도시락 지원 ▲1:1 맞춤형 심리지원 ▲생명털발 가꾸기 ▲생명동반 걷기 ▲희망공간 가꾸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신규 자살예방 특화사업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거동이 불편해 외출과 이웃간 왕래가 어려워 심리적 고독상태에 놓여있는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살위험성을 낮추는데 지역사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관광택시 서비스개선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진행

부안군은 25일 관광택시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안 관광택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광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교육은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친절 서비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촬영 기술, 관광실무 영어 교육,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이를 통해 관광택시 종사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안 관광택시가 관광객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관광택시 서비스 향상과 부안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인의 날’ 맞아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쳐

고창군 해양수산과가 지난 24일 '2025년 제14회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고창군수협, 고창군 어촌계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 고창군 연합회, (사)한국자율관리어업고창지회 등 약60명이 참여했다.

심원면 하전갯벌 일원과 고전리 부동 일원에서 바닷물에 밀려온 페스티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3톤 수거했다. 또한 평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까지 세심하게 살펴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해안가 중심 5개면에서도 3월부터 정화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고창군은 약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오태중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고창지역의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해안가 정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에 고창군립체육관에서 개최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군,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선정

‘28년까지 일반산단에 471억 투입…완주형 문화·산업 융합 혁신 모델 시동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경제 공존 지속가능 복합 생태계 조성

완주군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관한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산업과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창의적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단 3곳만 선정된 국가 전략사업으로, 완주는 높은 문화적 잠재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완주군은 완주일반산업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총 471억 원을 투입, 다음과 같은 8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 △노후산단개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 △문화가 있는 날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지원, 이를 통해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일하고, 즐기고, 성장하는 문화와

삶이 어우러지는 완주형 창의산단으로 새롭게 재편될 예정이다.

현재 완주군 산업단지에는 357개 기업이 입주, 이곳에서 18,971명의 근로자와 10,611명의 거주자가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인근 삼봉지구는 2030년까지 완주형 복합도시로 개발될 예정으로, 향후 완주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산업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완주군은 이번 사업을 ‘포스트 문화도시’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고, 완주문화재단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문화행정, 콘텐츠 기획, 지역 자원 연계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문화도시로서 축적한 경험과 전국적인 문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특화 문화 정책을 정교

하게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산업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완주형 문화산단 모델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완주군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로자, 거주자, 지역 예술인, 청년 창작자, 입주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와 문화 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년에 걸친 로드맵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특성과 연계된 문화콘텐츠 기획, 유통 공간을 활용한 문화복합공간 리모델링, 근로자·거주자·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체계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문화가 흐르는 창의적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마을기업들, 행안부 고도화 사업 선정

㈜비준양조·영농조합 야미…총 4천만원 사업비 확보

남원시는 마을기업 ㈜비준양조와 영농조합 야미가 2025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고도화 단계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원 금지면에 위치한 ㈜비준양조는 2019년 전라북도 제1호 농촌재생사업으로 폐정미소와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마을카페와 식당을 운영하고, 수제맥주와 전통주를 생산하는 마을기업이다. 주민들이 재배한 벼를 연간 50톤 도정하여 갯바위 화동쌀, 고소미로 브랜딩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프리미엄 탁주 ‘비준술’과 42% 알 도정주 ‘화동원’을 제조해 남원 대표 명주를 생산하는 마을기업으로 공동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비준양조는 연간 840여 만원을 마을운영자금으로 기부하고, 마을주민에게는 쌀 도정료 25% 할인, 고령농가 자경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남원 주천면에 위치한 영농조합 야미는 2021년에 팍스테이 마을

로 출발해 발효빵과 떡 생산으로 2023년에 신규단계로 진입한 마을기업이다. 마을에서 재배한 밀과 쌀, 고구마 등을 활용한 건강 베이커리 제품으로 관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또, 용성중학교와 남원여고, 지역아동센터에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며 80세 이상 마을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특성화살리기 사업에 선정돼 마을의 폐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 발효빵과 건강 음료를 판매하는 마을카페를 2024년에 오픈해 지역의 문화공간 및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행안부 고도화사업을 통하여 총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비준양조와 영농조합 야미는 신메뉴를 개발하고, 포장 패키지를 개선하는 등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판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립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 선정

순창군립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한 ‘2025년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구립한사람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독서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순창군립도서관은 구립한사람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센터 소속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과 체험 △책 읽어주는 사서 선생님 △작가와의 만남 △독서지도 강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 체험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아동·복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어린이들의 자기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농촌 빈집 정비사업 보조금 증액…최대 400만 원

완주군이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5일 완주군은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 및 건축물이다.

올해 100등 정도의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작년보다 증액돼 슬레이트 건물은 최대 400만 원, 일반건물은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빈집 소유주는 4월 4일까지 빈집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순철 건축과장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농촌 왕진버스 운행 의료 사각지대 해소

순창군은 25일 구립면 체육관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행하며 주민들에게 맞춤형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는 순창군과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 구립농협(조합장 김순웅) 등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됐으며,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신종철 지부장, 구립농협 김순웅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날 왕진버스는 구립면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양방진료(대사인병원), 구강검사와 교육(아이오바이오), 검안·돌보기 지원(디버지안경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는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작년보다 사업비를 증액해 지원을 한층 더 강화했다”면서 “오는 6, 7월에는 동계·금과·순창읍 주민을 대상으로 3회를 추가로 운영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행사 연다

장 담그기 퍼포먼스·도시민 장독대 분양·발효테마파크 연계 프로그램 등 진행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이 오는 4월 5일,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유네스코 장 담그기 문화 등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행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23번째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장문화의 세계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군은 예로부터 최적의 기후조건 속에서 질 좋은 장류를 생산해 온 고장이다. 특히 순창고추장은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될 만큼 그 명성이 높았으며, 이번 유네스코 등재는 순창의 전통 발효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값진 성과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순창군을 한국 전통 발효 문화의 중심지로서 국내 외에 더욱 알리고, ‘한국 발효문화의 시원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 내달 5일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유네스코 장 담그기 문화 등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관광객이 함께하는 장 담그기 퍼포먼스 ▲ 전문가의 지도로 진행되는 도시민 장독대 분양 체험 ▲ 순창 고유의 방식으로 전수받는 고추장 만들기 체험 ▲ 발효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발효쿠킹 클래스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도 순창발효테마파크와 연계

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할 응모권 이벤트가 진행된다. 고추장 명인의 특별한 선물 세트부터 순창 발효미생물캐릭터 인형 등 다채로운 기념품이 제공된다.

한편, 자세한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순창발효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전통시장 상인회, 동행 페스타 참여 결의대회 진행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동행 페스타 참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개최됐으며, 시장 상인 약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객 만족을 위한 ‘동행 페스타’ 참여 의지를 밝혔다.

‘동행 페스타’는 춘향제 기간 남원 내 음식점, 숙박업, 의류점 등 다양한 업종이 할인 및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로, 남원 전통시장 상인들도 적극 동

참해 방문객들에게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설시장에서는 이만근 공설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이 참석해 ‘동행 페스타’의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용남시장에서도 김병철 용남시장 상인회장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동행 페스타’ 참여 의지를 밝혔다.

인월시장 결의대회에서는 최병선 인월시장 상인회장과 상인들이 춘향제 기간 특별 할인 및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업종별 할인행사 및 추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 페스타’를 추진하고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물가안정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렴현장 선포…반부패·청렴 향상 민관협력 강화

완주군이 청렴현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25일 완주군은 유희태 완주군수와 청렴군민감사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될 것을 결의하는 청렴현장 선포와 청렴 메시지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청렴현장 선포식은 군정을 군민의 시각에서 감시하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촉한 제5기 청렴군민감사관들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청

렴문화를 지역사회까지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선포식 이후에는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위원회 진행을 통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청렴군민감사관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한 감시와 개선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겠다”는 청렴실천 강화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완주군은 2025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렴현장 규칙’을 공포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호원대와 DFL상용화·드론인재양성 ‘맞손’

남원시는 24일 DFL 상용화를 선도하기 위해 호원대학교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강희성 호원대총장이 함께해 남원시 드론산업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호원대 남원캠퍼스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호원대학교는 호남권 유일 산업대학으로 K-컬처 융합형 드론교육에 특화돼있으며 드론 방재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드론 스포츠와 예술의 접목 등 다양한 각도로 드론 산업 발전 및 드론 레저스포츠 DFL 확산에 앞장설 인재양성 기관이다.

남원시는 2023년부터 남원형 드론 레저스포츠 인력양성 및 문화 저변 확대 사업으로 전문가 양성교육, 취·창업 교육 및 창업 사업화 지원 등 남원시 드론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2025년에는 관내 경찰(자율방범대, 시민경찰), 소방(의용소방대) 대상으로 업무특화 드론교육을 진행하고 드론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남원형 공공업무 특화 드론교육’이라는 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재난·재해 현장 대응 능력과 드론의 활용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개인 텀블러 지참 할인 혜택

웰니스(웰빙, 건강, 행복)를 주제로 오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모악산 축구장 및 도립미술관 야외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회 모악산 웰니스 축제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실천과 환경보호에 집중한다.

이번 축제는 모악산이라는 자연을 느끼며 웰빙, 건강,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개

인 텀블러 사용을 적극 장려한다. 축제장 내 음료 판매 부스에서 개인 텀블러를 지참할 경우, 음료 구매 시 500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한편, 모악산 웰니스 축제에서는 모악산 숲 산책, 숲 놀이터,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돼 가족, 연인, 친구를 비롯한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지역 특산물 활용 코레일 연계 미식열차 운행

남원시는 전북 미식관광 활성화와 공모사업에 남원이 선정되며 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코레일 연계 미식 열차 운영으로 특별한 미식 여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식열차는 남원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자재를 활용한 특별한 메뉴와 디자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맛을 많은 관광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남원 미식열차’는 5월 춘향제 기간

첫 운영을 시작으로 5월에 15회에 걸쳐 운행될 예정이며, 남원의 특산물에 매력을 더한 ‘원푸드’의 독창적 로컬 메뉴도 제공할 계획이다.

미식열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은 기차 안에서부터 남원로컬 식자재로 든 음식을 즐기며 여행을 시작하고, 남원에 도착한 후에는 춘향제와 관련된 문화 행사 및 관광 명소들을 체험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 교육생 선착순 30명 모집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친환경 농업 종사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5년 친환경 농업 교육'과정 교육생을 내달 4일까지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에게 친환경 농업의 이해 및 확산을 위해 추진되며, 4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4회에 걸쳐 임실군청 농민교육장, 농산물가공센터 실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친환경 농업의 이해와 기초 ▲친환경 자연순환 유기농법 기술 편성해 실용성 있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 방법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문의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보건의원원,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기 진료 실시

임실군 보건의원원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료 시간을 30분 앞당겨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진료 시간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변경된다.

진료 시간 변경은 농촌지역 특성상 영농철에 아침 일찍 의료원을 찾는 내원 환자들이 많아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해 바쁜 농사철에 지역 주민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실시하는 조기 진료는 영농철이 끝나는 가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김대곤 보건의원원장은 “조기 진료로 의료원을 찾는 군민들이 진료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군민들이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산림과 최석원 팀장, 농학박사 학위 취득

장수군 산림과 최석원 산림정책팀장이 최근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산림 분야에서의 연구와 실무 경험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이번 학위 취득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열정의 결실로 평가된다.

25일 군에 따르면 최 팀장은 다년간 산림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오며 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산림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산림기술사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은퇴자, 농·임업인들의 산림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료 재능기부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 팀장의 깊은 지식과 실력은 많은 예비 산림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석원 팀장은 “이번 농학박사 학위 취득은 개인적인 성취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장수군 산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배움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와 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장수형 똑!똑! 복지올타리 운영’ 사업 대표적 우수사례…3년 연속 선정 쾌거

장수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마다 적극행정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이행 성과와 체감도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정한다.

5개 항목과 17개 세부지표에 대해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상위 30%에 해당하는 총 7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62)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장수군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지속적인 적극 행정 추진 노력과 뛰어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제도개선 노력 ▲기관장의 적극 행정 성과 창출 노력 ▲사전컨설팅 신청 및 처리 ▲공무원 인식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민간위원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대부분의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민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한 ‘장수형 똑!똑! 복지올타리 운영’ 사업은 대표적인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손꼽혔다.

이 사업은 복지안전 올타리 행정마차, 행복우편 배달서비스 등을 통해 사

회적 은둔·고립 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

최훈식 군수는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한 공직자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지지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살고 싶은 장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N치즈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서 인기

제5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참가…옥정호 출렁다리·치즈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 홍보

지난해 대한민국 3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임실군의 대표축제 임실N치즈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며 그 위상을 뽐냈다.

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임실N치즈축제 등 임실 관광 홍보를 위해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 임실군은 ‘2025 임실N치즈축제’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군은 임실N치즈 이벤트를 진행하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축제 홍보 영상과 2025 임실 방문의 해 관광 안내책자를 활용해 지역 관광도 함께 홍보했다.

특히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 임실치즈테마파크, 왕의 숲인 성수산과 사선대, 오수 의견관광지 등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한 다양한 에포먼스로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은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지난해 대한민국 3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임실군의 대표축제 임실N치즈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며 그 위상을 뽐냈다.

5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마을·임실을 일원에서 더 특별하게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선보인 대표 프로그램 ▲국가대표 밀키트 쌀피자 만들기 ▲임실N치즈 애플로 퍼레이드 등을 더욱 완성도 높게 준비하면서, 숙성치즈와 무가당 요거트 활용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한다.

특히 저지중 젖소의 원유를 활용한 숙성치즈 연계 프로그램을 보다 새롭고 풍성하게 준비하는 등 색다른 볼거리와 체

험거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면서 관광객 체류형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구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추진된다.

심 민 군수는 “이번 대표축제 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임실N치즈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문화를 선도하고,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2년 연속 국가암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무주군이 2024년 국가암관리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가암관리사업 평가는 수검률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담당자들의 사업수행 능력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암검진 수검률과 ▲지역암관리사업 홍보 ▲재가암환자 관리 ▲우수사례 공모 ▲담당자 역량 강화 ▲암관리사업 협력체계 강화 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무주군은 암검진 수검률이 30점 만점에 28.8점, 수검률 향상 부분은 15점 만점에 14.3점을 받는 등 8개 항목에 총점 92.1점으로 우수기관이 됐다.

무주군보건의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한영순 팀장은 “국가건강검진 활성화로 군민 건강, 나아가 무주지역과 나라 건강을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대상자 한 분 한 분에게 수검 독려 전화

는 물론, 1:1 문자 메시지와 안내문(우편)발송 등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21일 ‘제18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의원 내 원격을 대상으로 ▲암 예방 10대 수칙과 ▲국가 6대 암 검진 시기 ▲암 예방 그리고 ▲조기 진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암 예방 주간을 운영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종이팩·폐전지 집중 수거 캠페인’ 펼쳐

진안군이 생태건강치유 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종이팩 및 폐전지 집중 수거 캠페인’을 전개한다.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은 최고급 펄프로 제작돼 100% 화장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일반 종이와 혼합 배출될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별도의 분리배출이 필수적이다. 또한 폐전지는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경우 소각 시 폭발 위험이 있으며,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폐전지 속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이팩과 폐전지를 친환경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한 물로 헹군 후 말려야 하며, 폐전지는 이물질 제거 후 일정량을 모아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친환경 화장지로 교환할 수 있다.

종이팩은 200ml 20매, 500ml 20매, 1,000ml 10매당 화장지 1개, 폐전지는 200g당 화장지 1개로 교환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공동주택 및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종이팩과 폐전지의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별 집중 수거 활동을 통해 자원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수거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종이팩과 폐전지 재활용을 실천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며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고원길 이어가기 최대 참여 기록 ‘바이고서’ 지난 15일 시작…회당 참여자 200명 돌파

진안군과 진안고원길 사무국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2025년 ‘바이고서’(바람 이는 고원길에 서다, 이어 걷기 행사)가 연일 최대 참여 인원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 ‘바이고서’ 프로젝트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14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진안고원길 14개 구간, 총 210km를 걷는 행사다.

첫 화차였던 지난 15일에는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약 190명이 참가했으며, 지난 22일 진행된 2회 차에는 약 250명이 출발지에 집결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 참가자는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고,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을 보냈다”며 “진안고원길을 완주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매 화차 출발지에 오전 9시까지 도착하면 되며, 진안만남쉼터에서 오전 8시 30분에 카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고원길 사무국 또는 진안고원길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관내 7개 기업,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

장수군이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와 함께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5일 장수군청 2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7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친화 일촌기업’이란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체 또는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로서 새일센터와 여성친화적 일터를 조성,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전본

▲장수노인전문요양원 ▲밀알노인복지센터 ▲(주)피코바이오 등 7개소이다.

이들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확립과 여성인력 채용 등 여성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최훈식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주니어보드, 청년 캠프서 우수 사례 공유

임실군 주니어보드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복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하는 2025년 전북시군연맹 청년 캠프에 참여한 청년 조합원 앞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발표에서는 임실군 노사문화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수여에 큰 역할을 한 ‘꿀팁모음집’, 과 서무들을 위한 멘토형 매뉴얼인 ‘과 서무의 모든

것’등 임실군 주니어보드 활동 중 우수한 사례가 소개됐다.

임실군 주니어보드는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업무방식 변화와 상·하급자간 소통의 힘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고 1년 7개월간 활동 중 얻었던 노하우를 전달하는 등 임실군 청년정책의 우수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가축분뇨 퇴비 생산 농가 대상 부속도 검사 강화

진안군이 생태건강치유 도시 조성을 위해 친환경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봄철 농번기를 맞아 퇴비를 살포하는 농가는 퇴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퇴비를 배출하는 농가는 부속도 기준을 준수하고 퇴비를 퇴비사에 보관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생산처와 가축분뇨 성분검사서가 확인되지 않은 부적절한 퇴비가 반입돼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농경지에 가축분뇨를 방치하거나 부속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할 경우 행정명령 및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군산시, 핑크 물결 일렁이는 은파호수공원에서 카누 즐긴다

군산시가 은파호수공원에서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특별한 카누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벚꽃아래 카누타봄'이라는 주제로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이번 '카누타봄' 이벤트는 은파호수공원의 아름다운 벚꽃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추진되는 체험으로 레저카누 20대(2인승 10대, 1인승 10대)로 1일 5회로 운영되며 일일 150명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참가비는 5천원으로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수상 안전 교육과 기초 패들링 교육으로 카누 타는 방법을 배우고, 30분 정도 카누를 타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은파호수공원의 만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이벤트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카누를 직접 체험하면서 은파호수의 잔잔한 물결에 몸을 맡기고 벚꽃길과 물 위에 비치는 벚꽃을 감상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전주시 딸기농업인, 300만 원 성금 '함께라면' 후원 동참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전주시 딸기연구회가 소외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라면' 후원에 동참했다.

전주시딸기연구회(회장 함장호) 임원진 5명은 지난 25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1인 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전주 함께라면'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은 딸기연구회 소속 52명의 회원이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뜻을 모아 준비했다.

전주시딸기연구회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과)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 연구회로 정보교류와 전문기술 습득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단체로 육성되고 있는 농업인 자생 단체이다. 취약계층을 위해연구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성금을 19년부터 매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김보선코튼클럽 대표, 지역발전1천만원기탁

13년째 기부... 제19회 북면 민민의날 화합한마당 축제서 장학금 전달 예정

정읍시 북면 출신 기업인 김보선 대표가 13년째 고향에 따뜻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속옷 전문기업 ㈜코튼클럽 김보선 대표는 지난 24일,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에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정읍시 북면에 기탁했다.

김 대표는 북면 신평리 출신으로, 남다른 애郷심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매년 거액의 협찬금을 전하며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코튼클럽 김보선 대표는 지난 24일 성금 1,000만원을 정읍시 북면에 기탁했다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내달 5일 열리는 제19회 북면 민민의날 화합한마당 축제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과 북면 발전을 위한 제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보선 대표는 "이번 축제가면 모두가 하나 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해 작지만 꾸준한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SGC에너지, 6년째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 사료 기부

300만 원 상당 사료 기부... 임직원 '사랑의 1004운동' 통해 기금 마련

SGC에너지(주)는 지난 25일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 300만원 상당의 사료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사랑의 1004운동'의 일환으로서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마련된 성금을 사용되었다.

SGC에너지의 사랑의 1004운동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기부를 넘어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나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은

기업의 임직원이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면 기업에서 이 후원금과 똑같은 금액을 1 대 1로 매칭하여 조성하는 형태의 사회 공헌 기금 프로그램이다.

SGC에너지는 군산지역의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며,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과 따뜻한 온정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SGC에너지(주)는 25일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 300만원 상당의 사료를 기부했다



고창군, 취약계층 위한 따뜻한 기부 이어져

고창군은 4-H연합회가 백미550kg 50포(200만원 상당)를 기부했고, 골프존문화재단 골프존카운티 선운에서 생필품키트 250개(1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골프존문화재단 김영찬 이사장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더 나아가 희망을 향한 또 다른 퍼팅이 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달했다.

고창군 4-H 연합회 박정환 회

장은 "농부의 정성이 모여 한 톨의 쌀이 되듯,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끼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부자들의 따뜻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녹이고있다"며 "고창군의 온정이 곳곳에 스며들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망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하며 감사사를 표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안봉태 대표, '남원애명예의 전당'에 이름 올려

안봉태(유 백두산업개발 대표)·김명자 내외가 지난 25일 오전 남원시청(시장 최경식)을 찾아 고향 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안봉태 대표는 이번 기탁으로 2023년 500만원 기부에 이어 '누적 1,000만원' 기부를 달성하면서 '남원 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주생면 유매마을 출신의 안 대표는 자수성가하여 현재 곡성에서 석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며, 고향사랑기부 외에도 모교인 주생초등학교 발전기금 기부, 주생면 농악단 발전기금 기부(100만원), 유매마을 어르신들의 마을쉼터 조성 등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안 대표는 "나이를 먹을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 내 고향 남원이 많이 발전하면 좋겠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결혼이민자·중도 입국자녀 검정고시 특강 운영

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오인철)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들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초졸 검정고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달 초 검정고시 시험을 앞두고 응시를 처음 준비하는 대상자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특강반을 열기도 했다.

교육에서는 검정고시 응시 절차 안내, 모의고사 실전 연습 등 효과적인 시험 준비 전략이 안내됐다. 특강반은 오는 30일에 한 번 더 열린다.

완주군가족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연중 검정고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가 안정적으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오인철 센터장은 "이번 검정고시 특강반이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들이 학력 취득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근기자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세대에 밑반찬 전달

진안군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차재철, 민간위원장 석우석)는 지난 24일 관내 취약계층 20세대를 대상으로 '희망찬(饗) 반찬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희망찬(饗) 반찬지원사업'은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고령·질병·거동 불편 등으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어르신 가구에 분기별로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협의체 위원들이 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을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지원에서는 황태무국, 불고기, 머위무침, 조기구이, 팔기 등이 제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뿐만 아니라 고독사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익산한우리MJF라이온스클럽, 이웃사랑 나눔 3백만 원 물품 기탁

금마면 행정복지센터는 '익산한우리MJF라이온스클럽(회장 이유정)'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기능성 내의 60벌과 라면 500개, 지난해 익산시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 간 체결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및 협력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유정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는 3가지 실천 방법

1.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주범!

2. 인터넷 사용량 줄이기



-이메일삭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3. 친환경 제품이나 기업이용하기



현명한 소비의 선택으로
환경보호에 동참

〈一事一言〉



국민연금 개혁이 궁극하다(1)

유시민
작가

3월 20일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국힘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도 재석 의원 277명 가운데 84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정책노선이 아주 다른 진보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공히 반대표를 던진 것이 눈에 띈다. 누구는 최상목에게 거 부권 발동을 요구했고 누구는 그 런 행태를 비판했다. 누가 옳은지 살피려면 개정 내용을 보아야 한 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 어진 국민연금법 개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보험료율을 소득의 9퍼센트 에서 해마다 0.5퍼센트 포인트씩 올려 2033년까지 13퍼센트로 높 인다.
- 2) 소득대체율을 2026년 43퍼 센트로 올린다. 2007년 개정 법률 에 따라 40퍼센트까지 점진적으 로 인하하는 중인데 올해 41.5퍼 센트까지 내려와 있다.
- 3) 군 복무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병역 크레딧'을 강화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 다.
- 4)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에게 추가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을 강화해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 서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 개월씩 부여하며 상한을 폐지한 다.
- 5)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12 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 한다.
- 6)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법 률에 명시했다.

두 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따

르면 국회는 국힘당 의원이 위원 장을 맡는 연금개혁 특위를 만 들어 연말까지 연금재정 안정화 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 금 개혁방안을 찾는다. 민주당과 국힘당이 무언가를 두고 협상하 고 합의하는 장면을 오랜만에 보 았다. 합의 처리한 법률 개정이라 고 해서 반드시 국민에게 좋은 것 은 아니지만 윤석열의 대통령 취 임 이후 완전히 사라졌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살아난 것 같아서 일단 박수를 쳤다. 그렇지만 이 번 개정 내용은 그것대로 냉정하 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 월 6일 〈시민연론 민들레〉에 쓴 칼럼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질문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답은 적절한 기회가 생 기면 말하겠다고 했다. 때가 온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고 한다. 그때 했던 질문을 압축 하고 내 판단을 이야기하겠다.

1. 국민연금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그렇다. 맹목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 2025년 1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약 5120만 명이다. 65세 넘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자. 노인은 1000만 명을 넘겨 인구 의 20%를 차지한다. 한국은 초고 령사회가 되었다. 통계청의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중 400만 명이 '빈곤 노 인'이다. 여기서 '빈곤'은 상대적 개념이다. 소득이 노인 인구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인 사람을 '빈곤 노인'이라고 한다. 50년 정도 지 나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노인

일 것으로 추정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일부를 노후자금으 로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목적은 분명하다. '고령 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다. 장수는 축복이 지만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재난 이 된다.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 비하게 하려고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국민연금 제도가 없 다 고 하자. 1000만 명 넘는 현재의 노인 중에 얼마나 많은 이가 스스 로 노후자금을 준비했을까? 인구 의 절반을 차지할 50년 후의 노 인들은 어떨까?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미래의 필요를 경시하고 현재의 쾌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연금 제도마저 없다면 고령 빈곤 문제 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 해져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존 재할 가치가 있다. 이번에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것은 그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2.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연금인가?
이론은 그렇지만 실체는 그렇 지 않다. 국민연금은 국민 일부만 의 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 의 무가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232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나 모 든 가입 의무자가 가입해 있는 것 은 아니다. 국민연금 납부외자와 연금보험료 장기체납자가 400 만 명 정도 된다. 취업하지도 않 았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 경제활동인구는 아예 가입 의무 가 없다. 18세 이상 국민 가운데 약 40퍼센트는 국민연금과 무관

하게 산다. 의무가 없는데도 '재 테크' 차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가 있긴 하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 이것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라고 한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 것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 이 되긴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병역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도 마 찬가지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사실상 무 관하다.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재정 안정화 개혁'으로 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 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공적 연금 의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 질 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 다.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않은 재 정 안정화 개혁이기 때문이다. 나 는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 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이 아 니라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부조 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본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 하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연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전북 경제의 위기와 대응책

전북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 다.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기업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그 속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가계대출의 구조적 문 제와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어음 부도 율 급증 등은 전북 경제의 취약성을 여 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와 금융기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전북 지역의 가계대출은 25조7천671 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이 는 가계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특히 비은행권 대출이 급격히 줄어든 점은 금융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북의 전체 가계대출 중 예금은행 대출 비율은 46.4%로 전국 평균(75.7%)보다 현저히 낮아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 정책이 가계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주 택담보대출은 증가했지만 기타 대출이 10.9%나 감소한 것은 가계의 소비 여력 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기업대출과 관련된 지 표 에서 발견된다. 전북 지역의 기업대출 은 41조6천15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 비 4.0% 증가했지만, 이는 전국 평균 증 가율(4.8%)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비은 행 기업대출의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는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 및 어음 부도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 난해 말 기준 전북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기업대출 연체율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

다. 더욱이 1월 말 기준 전북의 어음 부 도율은 1.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 우선, 금 융기관과 지자체는 예금은행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유연한 금융 지원책 을 마련해야 한다. 예금은행 대출 비율 이 낮은 만큼 보다 많은 가계와 기업이 안정적인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 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어, 비은행 대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 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지나치게 비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 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인 금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끝으로 연체율과 부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 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지사 체가 협력해 위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 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하다.

전북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일 시적 어려움이 아니다. 가계와 기업 모 두 금융 환경이 악화되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되지 않는다면 경제 전반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는 금융당국과 지 자체, 지역 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뒷 받침되지 않는다면 전북의 경제 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야말로 선제적인 대응과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화
재
열
전



남원향교 대성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교육기관
- 지정일 - 1971년 12월 2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남원시 향교동 1512번지

▲오늘의시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에로 / 황 지 우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활벗고 영화 13도
영화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뭇으로 서서
아 벌받는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제 아닌데 이제 아닌데
온 훈(飢)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화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스러지도록
으스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서

타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썩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시인 약력 : 1952년 전남 해남 출생. 서울대 미학과 를 졸업하고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

를, 홍익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0 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고 '문화과지성'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교 수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산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진안지국 010-2433-1721	장수지국 010-8626-6049	완주지국 010-3672-0308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믿을수있는 뉴-스 전북의 중심에서!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익산시, '다리로움 취업박람회' 청년 고민에 답한다

- ◆ 좁은 취업문 뚫도록 자신감 회복 지원...지역특화형 일자리박람회 주목
- ◆ 청년 취업 돕고 지역 기업 경쟁력 동시 강화...1:1멘토링·면접 컨설팅



.....

지난달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가 120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용 불안정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다. 청년 고용 안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뿐 아니라 결혼, 출산 등 사회적 요소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도시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어려움이 익산시가 올해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청년천국을 만들겠다고 팔 걷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다리로움 취업박람회'가 어떻게 지역 청년과 함께 난관을 이겨내고 있는지 짚어봤다.

.....

지난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다리로움 취업박람회는 2023년 출발 이후 지난 2년간 익산시 청년 정책을 대표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광장으로 자리 잡았다.

청년에게는 취업 기회를, 지역기업에는 필요한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취업박람회에 창업박람회를 더해 한층 강화된 전략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다리로움 취업박람회의 목적은 '취업 성공률'이라는 숫자에만 있지 않다.

세심한 지원을 받은 지역 청년들이 작은 성공의 경험을 발판 삼아 자신감을 회복하고 결국 사회의 한 부분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청년시청은 취업박람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든든한 조력자다.

이곳에서는 거듭된 실패에 지친 청춘도, 아직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한 이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꿈을 향해 작은 걸음을 내딛는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위로와 힘이 된다.

실제 그동안 시는 청년시청에서 열리는 다리로움 취업박람회를 통해 총 4,000여 명의 구직자와 279개 기업 및 기관이 현장에서 만나는 실질적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 청년들은 다양한 기업 정보를 얻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취업 성공률을 높였다. 참여 기업은 우수한 지역 인재를 확보해 장기근속률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다리로움 취업박람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박람회라는 점이다.

보건·의료 분야 박람회부터 금융기관·공공기관 채용설명회, 여성친화 취업박람회,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식품산업 맞춤형 박람회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와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시는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이미

지 메이킹, 현직 인사 담당자와의 1:1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유명 인사를 초청한 취업 콘서트 행사는 청년들의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높이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시는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다리로움 취업박람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감 있는 취업의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익산 통합일자리센터'를 가동해 분산된 일자리 정보를 한데 모아 시민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박람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매달 개최하던 방식에서, 격월제로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올해부터는 짝수달 세 번째 화요일마다 청년시청에서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시는 구직 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희망 청년에 대한 지원의 폭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청년들이 익산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취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언제 어디서든지 임실치즈를 만날 수 있는 "임실치즈 꾸러미" 사업을 시작합니다.

구독서비스 "치즈꾸러미"

문앞까지 간편하게 배송되는 구독 서비스를
QR코드로 편리하게 접속하세요!

☎ 택배주문전화 063_640_6426
☎ 고객센터 063_640_6464
☎ 결제계좌 농협 178961-51-001093 (예금주: 임실치즈농협)

구독서비스
~20% OFF

임실치즈농협과 함께 성장할 판매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1967년 국산치즈의 시작!
반세기이상 우리 가족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져 온 임실치즈농협이
더 많은 고객님을 만나기 위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모집대상 전국 각지역, 임실치즈 유통 및 판매점 운영 희망자

지원혜택 프로모션 및 판촉지원, 성과기반 보상지원

개설절차 사업신청 ▶ 본점·내방 ▶ 서류제출 및 검토 ▶ 개설완료

문의및신청 063)640-6464 (임실치즈농협 마케팅사업부)
홈페이지 : www.ischeese.co.kr